

광주·전남 계란값 전국 평균보다 비싸...서민 부담 커졌다

계란 한판 평균 각 7천429원·6천727원 고병원성 AI 장기화 등 수급 차질 영향 돼지·닭고기 등 축산물 가격도 상승세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 장기화 등 영향으로 전국 계란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광주·전남의 계란 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주요 축산물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다.

1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 서비스 카미스(KAMIS)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광주지역 계란 가격은 한 판(특란·30구) 평균 7천429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날(6천733원) 대비 10.3% 올랐다.

전남지역 역시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남의 계란 한 판 가격은 6천727원으로 지난해 같은날(6천163원) 대비 9.2% 상승했다.

지난 13일 전국 평균 계란 가격은 6천726원으로 지난해(6천552원) 대비 2.7% 상승했다.

광주·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계란값이

오른 이유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2025-2026년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 규모는 980만 마리를 넘어 1천만 마리에 가까운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살처분 규모인 483만 마리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며 2-3년 전과 비교하면 약 네 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총 56건이 발생해 2022-2023년 동절기 32건과 2024년-지난해 동절기 49건을 모두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할인 지원을 확대하고 미국산 신선란을 추가 수입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산란계 살처분 규모가 크게 늘면서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계란뿐만 아니라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축산물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광주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품목 포함, 2020=100) 기준 돼지고기는 지난해 2월 116.4에서 지난해 12월 128.2로 11.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수입돼지고기는 131.6에서 136.6으로 5%, 닭고기는 122.5에서 124.3으로 1.8% 각각 상승



농림축산식품부가 추가 수입한 미국산 신선란을 확보해 판매를 시작한 16일 서울 홈플러스강서점에서 한 시민이 미국산 신선란을 구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했다. 전남 지역도 상황은 비슷했다. 돼지고기는 115.5에서 129.0으로 13.5% 상승했으며 닭고기는 128.1에서 133.0으로 4.9%, 수입쇠고기는 139.6에서 142.2로 2.6% 상승하는 등

주요 축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이어갔다. 최근 돼지고기 가격은 전년 대비 10% 이상 오르면 축산물 전반의 가격 상승 흐름을 이끌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돼지고기와 계란, 식용유, 통신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23개 품목을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들 품목을 상반기 동안 집중적으로 점검해 물가 안정을 위한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안태호기자

광주은행, 외국인 근로자 금융문턱 낮춘다

계좌개설 등 지역 정착 지원 맞춤형 교육

광주은행은 지난 15일 광주지역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융 정보를 제공하는 '외국인을 위한 금융특강'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광주은행 외국인금융센터와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공동으로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국내 금융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계좌 개설, 카드 이용, 신용관

리 등 기본적인 금융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진행됐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 방법을 비롯해 실제 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들이 금융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날 교육에는 6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참석했으며, 강의 후에는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금융 이용 과정에서 겪었던 불편과 애

로사항을 해소하는 소통의 시간도 마련됐다.

교육에 참가한 한 외국인 근로자는 "은행 창구를 방문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두렵게 느껴졌는데, 은행 직원들이 직접 친절하게 설명해줘 안심이고 은행에 대한 신뢰도 높아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훈 광주은행 외국인금융센터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교육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매년 증가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이주민의 금융 편의성 향상을 위해 지난 2025년 2월 광주·전남 금융권 최초로 광산구 흑석동에 '외국인금융센터'를 개점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네팔,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5개국 출신 외국인 직원을 창구에 배치해 언어 장벽을 낮췄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일요일에도 점포를 운영하는 등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재만기자



광주일자리재단, 일반직 전환 노사합의 전격 체결

노동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내달 구체적 세부계획 수립키로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16일 "재단 3층 최상층에서 공무직 근로자의 일반직 전환 추진을 위한 '노사합의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재단과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노동조합이 공무직 근로자의 직급 체계를 개편해 조직의 통합성을 높이고,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번 결정은 노동조합원 투표 결과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민주적 절차와 노사간

합의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합의 내용은 ▲공무직 근로자의 일반직(6급) 전환 절차 실시 ▲본인 의사 존중 및 기준치유 유지 원칙 ▲2026년 4월 내 구체적 세부 계획 수립 ▲기존 일반직 직원과의 형평성 고려 및 조직 화합 노력 등이다.

재단은 이번 합의에 따라 전환 임용된 인원에 대해 기존 직원과의 역차별을 방지하고 조직 내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노사 합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재단과 조합은 광주시 공무직 정원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전환 절차를 이행하며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다.

/안태호기자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재생에너지 100% 사용 약속

RE100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갑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 안의 유일한

친환경 수목장

- 아름다운 자연
- 365일 관리
- 가족구성 가능
- 사용기한 없음
- 전문 이장
- 광주시청 20분

수목장 · 묘지 이장 · 장례

상담: 062-449-4446

